

오장환의 초기 시에 드러나는 근대성과 내면의식 연구

김 지 율 (경상대)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이방인의 공간과 현실에 대한 환멸 |
| II. 근대문명에 대한 시선과 반성적 지성 | V. 결론 |
| III. 주체의 분열과 이중적인 욕망 |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오장환의 초기 시에 드러나는 다층적인 모습의 근대성이 근대 주체의 내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즉 근대 주체들의 복합적인 내면의식을 식민 자본주의 근대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특징들을 통해 논증함으로써 근대성과 내면의식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1930년대는 ‘근대’와 ‘식민지’라는 특수하고 복합적인 시대적 상황 아래 있었고, 피식민 주의 개인들은 식민지 근대의 다층적인 모순들을 내면화하였다. 오장환의 초기 시에서는 대상을 타자화 함으로써 객관적 거리두기와 관찰자적 시선이 드러난다. 이러한 시선은 근대에 대한 확신과 회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근대 주체의 성찰적 지성과 맞닿아있다. 또한 근대와 전근대의 가치와 이념 속에서 개인적 욕망에 충실한 근대 주체들은 식민지 근대의 모순들에 노출되어 주체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근대 개인이 경험한 도시를 비롯한 공간들은 사회적 실존의 공간이며 나아가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상상력의 지표가 된다. 또한 그들은 식민 근대의 공간에서도 인종적,

계급적 차별과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문화들 속에서 현실의 환멸을 경험하게 된다.

핵심어: 오장환, 근대성, 관찰자적 시선, 반성적 지성, 주체, 이방인, 공간, 환멸.

I. 서론

본 논문에서는 오장환의 초기 시에서 드러나는 근대성¹⁾의 다층적인 면모

- 1) 서구의 '모더니티(modernity)'를 번역한 '근대성'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삶의 독특한 형태로서 근대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철학적·정치사회적·경제적·미학적 층위 등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된다. 모더니티에 대한 단어의 번역을 근대성 혹은 현대성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근대성이란 번역은 전체적인 성찰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더니티 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현대성이란 번역은 현재의 모더니티의 당위성과 영향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사용된다. (김성기, 『개항기의 한국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261-263면.) 앞의 논의에 따라 이 글에서는 '근대성'라는 용어를 따른다.

일반적으로 모더니티는 우리 자신과 세계의 변혁을 약속하는 동시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칼리니스쿠의 정의에 따르면 모더니티란 과거의 비판적 입장과 함께 변화와 미래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내포하는 개념인데 그는 두 가지의 모더니티에 대해 역설하였다. 즉 진보의 원리, 과학기술에 대한 확신, 추상적인 인본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모더니티와 그것이 가져온 소외와 물화 현상 그리고 부르주아 속물성을 철저히 반대하는 미적 모더니티가 그것이다. (마테이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욱 외 역, 1993. 53-54면.)

한편, 미셸 푸코의 정의에 따르면 근대는 지금 이 삶의 자리, 이 순간에 가까운 시대이며, 이 순간의 삶을 형성하는 동시에 삶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의 표상이다. 그러므로 그는 근대성을 일종의 시대 개념을 전체

를 살피고, 그러한 특성들이 근대 주체의 내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오장환이 활동했던 1930년대는 ‘근대’와 ‘식민지’라는 특수하고 복합적인 시대적 상황 아래 있었고, 피식민주의 개인들은 이러한 모순적인 식민지의 근대성을 내면화하였다. 오장환의 시에 나타나는 근대적 개인들은 진보적인 의지를 보이지만 동시에 오래된 전통적 관습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주체들의 복합적인 내면의식을 식민 자본주의 근대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특징들을 통해 논증하고 근대성과 내면의식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근대화는 독립된 국가의 성립을 그 전제로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라는 시대 상황으로 이러한 양상이 크게 왜곡되거나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을 통해 유입된 근대적 양상들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했던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의 특수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시인이나 시적 주체의 식민지 경험이 중요한 부분이라면, 당시의 근대 식민지의 현실이 시와 시인의 내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시인의 시대의식과 시의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대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주체 중심의 사상이 자아의 자기 분열과 주객 분리를 초래했다는 것인데, 주체의 정립은 필연적으로 세계와 타자와의 근원적 분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²⁾ 즉 근대의 주체는 대상이나 세계를 임의의 표상³⁾으로 설정하고 주변 관계들을 새롭게 수립한다. 이러한 주체들의 근대성은 공간과 시간, 자아와 타자 그리고 식민지의 지배와 피지배의 경험 등을 통해 그 특

로 하여, 이 순간의 삶과 가까운 시대의 특질을 표상한다고 보았다. (김성기, 앞의 책, 349면, 각주16 참조.)

2) 강영안, 『주체의 자리-전통, 근대, 탈근대 사이』, 『전통·근대·탈근대의 철학적 조명』, 철학과 현실, 1999년, 44면.

3) ‘표상’이라는 말은 심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형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마음속에 떠올리는 심리적인 조작에 관련되는 부분과 어떤 것의 대체물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는 물질적인 행위 등을 이른다. (이효덕,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사, 2007, 19면.)

징들이 드러난다.⁴⁾ 또한 식민 근대 경험의 대부분은 단절과 소외감에서 비롯되며 타자와 세계로 향했던 시선이 결국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로 향하여 자기로부터 관심을 놓지 않고 궁극적으로 자기 내면에 도달하거나 되돌아가는 것을 푸코는 ‘전향’이라고 정의했다.⁵⁾ 이러한 전향은 시인과 근대 개인들의 내면을 해체하거나 새롭게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오장환⁶⁾의 초기 시는 당시 김기림이나 정지용 시에서 보였던 감각적 이미지와 절제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과거와 현실에 대한 불안과 우울, 분노와 절망 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근대를 경험하는 개인들의 내면상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몰락한 역사와 전통, 근대 문명과 타락한 도시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왜곡되어 가는 개인들의 삶을 통해 근대가 지닌 다양한 모습들을 통찰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의 초기 시가 보여주는 퇴폐성이나 도시문명의 불안에 대한 우울과 비판적 시선은 근대에 대한 시인의 시적 인식이자 태도일 것이다. 김기림이 오장환의 시집 『성벽』을 읽고 ‘현실에 대한 극단의 불신임과 행동에 대한 열렬한 지향 그리고 퇴폐와 악에 대한 깊은 통찰 등으로 새 『타입』의 서정시를 세웠다’⁷⁾ 평은 현실에서 당대 지식인으로서 오장환이 취했던 근대의 비판적 태도에 대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오장환에 대한 연구는 1988년 월북 시인에 대한 해금 조치를 전후로 시작되었다.⁸⁾ 비교적 최근의 주요 논의는 해방을 기점으로, 해방 전과 해방 후로

4) 엄성원, 『한국 현대시의 근대성과 탈식민성』, 보고사, 2006, 17면.

5) 미셸 푸코, 섬세광 역,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254면.

6) 오장환은 1933년 『목욕간』이라는 시로 『조선문학』에 등단하였다. 이듬해 1934년 《조선일보》에 『카메라·룸』을 발표하였으며 1936년 《시인부락》의 동인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다. 5권의 시집과 러시아 에세이의 번역시집을 간행하였다. 그는 해방 이후 월북하였고, 분단으로 이어지는 근대사를 직접 겪으며 그만큼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7) 김기림, 『성벽』을 읽고, 『조선일보』, 1937년 9월 18일.

8) 오장환 시세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 주목한 초기 연구로 최두석(『오장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 『오장환 전집2』, 창비, 1989, 120면.)과 김용직

구분하여 일제 식민과 해방이라는 배경 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해방 이전 오장환의 초기 시에 대한 연구는 근대적 비판과 시의식의 해명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진행되었다.⁹⁾ 오장환의 후기 시에 대한 연구는 해방이라는 특이한 상황과 함께 그의 시대인식과 더불어 시적 특징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¹⁰⁾ 이밖에도 정치성과 전위성에 주목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¹¹⁾

오장환의 근대성에 대한 연구로 강경희는 1930년대 도시의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을 강조하며 그의 시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한 형상들을 근대의 이상(理想)과 모순이 낳은 ‘추의 미’로 정의하였다.¹²⁾ 하지만 오장환의 내면의

(『열정과 행동』, 『현대시』, 1992. 4월호, 56면.)이 있는데, 이들의 논의는 대체적으로 오장환의 시가 모더니즘을 지향하다 현실을 중시하는 리얼리즘으로 변모하였다고 보았다.

- 9) 오장환의 초기 시에 대한 연구로 주영중은 낭만성에 대하여(주영중, 『오장환 시의 낭만성 연구-『성벽』과 『헌사』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1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422-425면.), 장만호는 환멸의 낭만주의에 대하여 밝혔으며(장만호, 『부정의 아이러니와 환멸의 낭만주의』, 『한국시와 시인의 선택』, 서정시학, 2015, 229-233면), 이현승은 부정의식이 오장환 초기 시의 주된 의식임을 드러냈다. (이현승, 『오장환 시의 부정의식 연구-초기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 25호, 한국시학회, 2009, 228면.)
- 10) 이 시기의 특징과 시적 내면의 연관성에 주목한 연구로 최명표가 있다. (최명표, 『해방기 오장환의 시와 시론』,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5, 6. 189면.) 그리고 월북 이후에 지은 『탑』(『문학예술』, 1949. 1)을 새로이 발굴한 장만호는 오장환의 자기 인식과 비판을 통해서 과거의 세계와 결별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세계로 나갔음을 밝히고 월북 이후 그의 시는 봉건적이며 재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장만호, 『식민과 해방; 두 ‘탑’ 사이의 거리-발굴 작품들을 중심으로 본 오장환의 해방기 시』, 『한국시와 시인의 선택』, 서정시학, 2015. 140-144면.)
- 11) 홍기돈, 『오장환 시의 정치성 연구』, 『어문연구』 64집, 어문연구학회, 2010, 135면. ; 이성혁, 『1930년대-1940년대 초반 한국 아방가르드 시의 정치성 연구』, 『외국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7. 112-115면.
- 12) 강경희, 『오장환 시의 근대적 미의식 연구-8·15 이전 시를 중심으로』,

식과 산문에서 드러나는 문학적 신념으로 볼 때, 그것이 위악적 현실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자 방법적 측면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근대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경아의 논의는 사회 역사적 근대성과 미적 근대성을 이중대립 구도로 분석하고 있다.¹³⁾ 전자는 시인이 속한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통해 드러난 시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특징이며 후자는 서구 모더니즘의 방법들을 수용함으로써 이미지 차용을 비롯한 시의 형식과 기교에 대한 실험정신에 따른 특징들을 밝혔다. 박민규는 『성벽』과 『헌사』에 드러나는 오장환의 근대의 비판적 성격을 댄디즘에 근거해 분석하며, 전통부정이나 근대 도시문명의 동경이라는 기존 견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¹⁴⁾ 남기혁은 오장환의 시에 드러나는 퇴폐주의 미학은 식민주의적 근대화에 대한 저항이나 부정과 함께 인간의 원시적인 생명성을 잃은 영혼이 겪게 되는 좌절과 회한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하였다.¹⁵⁾ 이러한 연구는 오장환 시의 근대적 특징을 밝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시가 보여준 근대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 되었는지에 따른 좀더 세부적인 논증이 필요하며, 아울러 근대성과 내면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그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오장환의 초기 시에 드러나는 다층적인 모습의 근대성이 근대 주체의 내면의식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선은 주체의 체험을 의미화하며 시적 대상의 질서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근대적 시선은 대상을 타자화함으로써 객관적 거리두기와 관찰자적 시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시선에는 주체와 타자 그리고 사회·역사적 인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근대

『어문연구』 3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307면.

13) 이경아, 『오장환 시의 근대성 연구』, 『국어국문학』149호, 국어국문학회, 2008, 607면.

14) 박민규, 『오장환 시의 댄디즘에 나타난 근대 비판의 성격』, 『비교한국학』1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7, 229면.

15) 남기혁, 『현대시의 형성기(1931~1945)』,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167면.

를 반성하는 지성과 맞닿아 있다. 또한 근대와 전근대의 이념 속에서 개인적 욕망에 충실한 근대 개인들은 식민지 근대의 모순을 인식하며 자아의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과 근대 속에서 이중적 자아의 모습을 드러낸 개인들은 식민 근대의 공간에서도 현실의 환멸을 겪게 된다. 근대 개인이 경험한 도시를 비롯한 공간들은 사회적 실존의 공간이며 나아가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상상력의 지표가 된다. 근대의 이질적이고 낯선 이방인의 공간에서도 인종적, 계급적 차별과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화들 속에 노출된 근대 주체들의 현실적 환멸에 주목하였다.

II. 근대 문명에 대한 시선과 반성적 지성

발터 벤야민의 말처럼 보들레르에게 보였던 산책자의 관찰자적 시선이란 군중과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자신을 군중과 동일시하는 태도이다. 이 관찰자적 시선은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전제로 하며, 이 거리는 바라보는 주체의 소외된 내면 풍경을 드러내는 미학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¹⁶⁾ 이러한 시선은 풍경이나 대상을 타자화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내부로 향할 때 반성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근대 문명이 가져온 많은 변화들 중의 하나는 현실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키거나 사물과 사건들을 과편화시키는 것이다. 오장환 시의 ‘거리두기’¹⁷⁾ 나

16) 벤야민은 스쳐지나가듯 관망하는 이러한 시선을 ‘삼화적 시선’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부유하는 순간의 근대적 일상을 일련의 이미지로 포착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선은 무심하지만 주의력을 갖고, 매혹적이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특징을 가진다. (발터 벤야민, 조형준 역, 『아케이드 프로젝트』, 새물결, 2005. 969-970면.)

17) 『월향구천곡 슬픈이야기』의 기녀, 『魚肉』에서의 신사들의 모습 그리고 『온천지』, 『고전』에서의 화자는 모두 시 속의 상황에 최대한 감정을 배

몽타주 기법 등은 근대적 현실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객관적 시선이며 그것을 시로 형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식민지 근대화의 갈등과 모순들을 매우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하며,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통해 ‘근대를 그 내부에서 혁파하려던’ 시인이다.¹⁸⁾ 비교적 초기 작품이라 볼 수 있는 『목욕간』과 『카메라·룸』 그리고 장시인 『전쟁』과 『수부』등에서는 근대 문명과 자본으로 인해 비인간화되고 타락해가는 현실을 관찰하려는 시선이 드러난다. 이는 근대 문명을 비판하고 성찰하려는 반성적 지성에서 연유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쟁』은 628행이 넘는 장시로 당시 일제 검열로 많은 부분이 삭제되었다. 무엇보다 문명 비판과 전위적 실험성이 강하고 주제나 내용면에서도 근대 문명의 부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작품이다.¹⁹⁾

시에 등장하는 무기들과 전쟁 묘사는 1차 세계대전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과학의 발달로 최첨단의 참혹한 전쟁이 될 2차 대전의 징후로 볼 수 있다. 당시 세계정세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이유로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이어 독일이 탈퇴하면서 국제연맹의 붕괴가 현실화되었던 시기이다. 즉 대공황과 전

제하고 관찰자적 시선에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려는 시인의 미적 태도와 인식의 지향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18) 김재용 편, 『오장환 전집』, 실천문화사, 2002. 663면.

19) 『전쟁』에 대한 연구자로, 이필규는 오장환의 『전쟁』과 엘리엇의 『황무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필규, 『오장환 시의 변천과정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현수는 최초로 『전쟁』만을 단독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아방가르드적 특징과 이에 영향을 준 일본의 『시와 시론』 동인과의 비교 연구는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박현수, 『오장환 『전쟁』 연구』, 『세종어문학』 10집, 11집, 1997; 『오장환 초기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한국시학연구』, 2001, 147면.) 이현승은 『전쟁』의 전체적인 짜임을 살피고 장면이나 이미지의 제시에서 오는 알레고리적 특성을 살폈다. (이현승, 『오장환의 『전쟁』 연구』, 『비평문학』 42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326-328면.) 그리고 광명숙은 『전쟁』에서 드러나는 몽타주와 알레고리가 결합된 양상들을 분석하고, 이 시의 시대적 성격에 대해 평했다. (광명숙, 『吳章煥의 長詩 『戰爭』과 몽타주적 알레고리』, 『어문연구』 40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74면.)

쟁 속의 당시 국제 정세는 시에 드러나는 급박한 전장(戰場)과 다를 바 없는 위기와 불안 그 자체의 상황이었다. 『전쟁』에는 육지, 해상, 지하를 가리지 않는 전쟁터와 온갖 첨단 무기와 살인기술들이 열거되어 있다. 또한 역사상 전쟁 위인들의 등장은 비관적인 근대문명에 대한 알레고리적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宣戰布告

..... 쟈 너 니 표 나

어린애키우는집의강아지같은 詩人

전쟁의 株券을 팔고사는 古典的이웃되는 實業家

박쥐의 나라. 즉. 쥐의 나라

JERNFFA

지게미. 턱지끼. 小貨物. 과. 等等.

家畜들의 理想村

아가!

너희들의 싸움은 어른에게따귀맞겐마즐것이 없단다아.

-『전쟁』 부분

선전포고와 함께 전쟁이 시작되고 호외가 나돌고 있는 시의 첫 장면에서 는 포로와 부상병들이 가득 찬 야전병원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실존의 최전 선인 전쟁터의 모습이 드러난다.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간성의 파멸에 이르는 무질서한 혼돈 그 자체이다. 살인광선과 세균 무기 그리고 독가스화 방사선 등을 이용한 과학 병기의 살인적인 모습에서는 근대 과학 문명의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과학이 전쟁을 키우는 ‘유모(乳母)’라면 언론이나 시인 또한 전쟁이나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종속 관계로, 왜곡 된 현실을 더욱 자극하거나 부추기는 저널리즘의 대명사로 인식된다.

1)

- 急流에고기뒤듯되는 記者의 手腕
- 누가 짜-내리즘과성교를하여주겠느냐
- 짜-내리즘의 난산
- 나의 아저씨는 新聞을 본다.
나의아저씨는 나의아저씨의콧딱지를우비고앉았다.
아래턱에 수업이몇자락 송송나왔다.
바람이불일때마다 아저씨의수업은 蘭草를그린다.
『四君子』를조와하는아저씨는『사군자』를아지못한다.

아저씨는, 지저분-하게허트러진活字속에서 傳統을 차를수잇느냐?

2)

地圖의 破瓜

도색간통

새싹은滿朔이되었으니, 너는 전날, 당기꼬리가잔등이에박이여좁이나不便
하였겠느냐!

별서 너는 午前브터비르는구나.

處女야!

치녀야!

産婆를불너다주련?

새아침.

輕氣球를 높이空中에꼬지라.

微笑는 歷史를모르고,

눈물은 고인적이없다

戰爭이란動物은 反芻하는 재조를가졌다.

-『전쟁-‘총이 웃는 것은, 전쟁 자신이 시인이기 때문이다.’ 부분

1)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침묵하는 근대의 비인간적인 기자와 언론에

대한 풍자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전쟁의 시작과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각종 보고와 통신에 관련되는 것들 또한 언론에 해당된다면, 오장환이 근본적으로 비판하려는 전쟁과 시인과 저널리즘은 모두 같은 속성을 가진 대상들이다. 즉 근대문명과 전쟁 속의 저널리즘이 사람들을 맹목화시키는 위력에 대해서는 “누가 썩-내리즘과성교를하여주겠느냐”며 그것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지저분하게 흐트러진 활자 속에서는’ 어떠한 전통이나 진실도 찾을 수 없다는 것에서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에 기인한 시인의 풍자를 확인할 수 있다.

2)의 종전(終戰)의 장면에서는 지도의 파국과 도색간통 그리고 처녀의 출산장면들이 병치되고 있다. 비인간적인 살육과 파괴를 반성하지 않는 전쟁의 ‘미소’는 그러한 역사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은 자신을 “反芻”하며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근대의 위대함과 공격성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추억하는 재주를 가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시에서는 근대 문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저널리즘’, ‘기계 과학’, ‘세대갈등’과 같은 단어를 나열하거나 ‘징기스칸, 항우, 히틀러, 장개석’ 등의 전쟁 영웅을 회화화한다. 때로는 비폭력주의자인 간디를 약한 자의 무력한 저항이라 말하는 아이러니 또한 인상적이다. 자본과 전쟁 그리고 근대와 문명에 대한 과편적이고 풍자적인 모습은 현실비판에서 나온 반성적 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총이 웃는 것은, 전쟁 자신이 시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아포리즘적인 부제에서 전쟁과 시인 그리고 문학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당대 사회의 문화적 풍속도로써 근대화를 상징하는 현실 공간인 ‘서울’을 소재로 한 『수부』에서도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1

수부의 화장터는 번성하였다.
산마루턱에 드높은 굴뚝을 세우고

자그르르 기름이 튀는 소리
 시체가 타오르는 타오르는 끄름은 맑은 하늘을 어지러놓는다.
 시민들은 기계와 무감각을 가장 즐기어한다.
 금빛 금빛 금빛 금빛 교착(交錯)되는 영구차.
 호화로운 울음소리에 영구차는 몰리어오고 쫓겨간다.
 번잡을 존승(尊崇)하는 수부의 생명
 화장장이 앉은 황천고개와 같은 언덕 밑으로 시가도(市街圖)는 나래를 펼쳤
 다

10

대체 저널리즘이란 어쩌서 과부처럼 살찌기를 좋아하는 것인가!
 광고-광고-광고-화장품, 식료품
 범람하는 광고들
 (중략)
 비만한 상가, 비만한 건물, 휘황한 등불 밑으로 기어들기를 좋아하느냐!
 너는 너 애비의 슬픔 교훈을 가졌다
 너들은 돌아오는 앞길 동방의 태양-한낮이 솟을 제
 가지뺨다귀 같은 네 모양이 무섭지는 않니!
 어른거리는 등롱에 수부는 한층 부어오른다
 - 『수부(首府)-수부는 비만하였다. 신사와 같이』 부분

문명과 도시가 구축한 모순적인 삶과 현실의 질서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대상과 의도적인 거리를 두는 관찰자적인 시선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것은
 ‘수부’를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이 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근대 도시에서
 밀려난 소외된 개인들은 어디에서도 몸과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 수 없다. 수
 부의 언덕 위에는 화장장의 연기로 오염된 하늘이 있다. 화장터로 밀려드는
 영구차의 행렬이 이어지는 고개에서 바라본 수부는 ‘번잡을 존승’할 정도로
 근대 자본주의의 화려한 욕망과 퇴폐의 온상이다.

화려한 상가들과 불빛들 그리고 수많은 광고의 범람으로 팽창해지고 비탄
해져 가는 도시는 자본의 욕망 그 자체이다. ‘지도 속에 한낱 화농된 오점’에
불과한 근대 자본의 수도인 수부는 ‘너는 니 아버의 슬픈 교훈을 가’진 비극
적 공간이자 식민주의 자본주의의 병폐로 물든 곳이다. 도시의 화려함은 착
취와 부패를 통해 가능했을 것이며, 고름이나 염증으로 얼룩진 ‘화농된 오점’
과 환부는 점점 커질 것이다.

오장환이 근대를 바라보는 이러한 관찰자적 시선은 『카메라·룸』²⁰⁾에서도
발견된다. 카메라 렌즈로 상징되는 근대적 시선에 포착된 몽타주는 근대 주
체들 속에 내재된 풍경으로서 근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현실적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 시에서는 전통 관념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문명에 대한 관심,
무의식적인 욕망과 같은 현실의 다층적 심리 상황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근대의 개인들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근대를 지향하지만 진보다운
진보도 없이 근대와 전근대의 경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

개인은 경험을 통해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확인하는데 그것이 곧 반성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들은 스스로가
비판하는 자이며 동시에 비판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개별 주체 스스로의 경
험을 통해 형성된 이러한 반성적 지성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개인에게 암
묵적으로 강요한 것이기도 하다. 오장환은 전근대적 가치나 근대적 이념들이
공존하는 이러한 현실을 통해 ‘인간의 의무’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체의 인간 지배자들은 인간을 위한 즉 자기가 집단생활을 하는 의
무상의 행동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눈앞에 이기(利己)의 근성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인간의 지혜란 제 의무까지 무시하여가면서 그릇 해석된 쾌

20) 이 시에 대해서는 현대시에 있어서 새로운 감각의 신경지를 개척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이봉구, 『성벽 시절의 장환』, 『성벽』 재판본의 후
기, 1947, 84면.) 단편적인 시상의 나열일 뿐 새로운 감각이나 페이스스
또한 제시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학동,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77면.)

락을 느끼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가 모두 보고 들은게 그러한 완곡된 관념이요 지혜이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것은 하루 바빠 버릴 필요가 있다.

“현실-자연과 사회의 모든 현상-은 예술의 제재로서 선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떠한 제재를 선택하여 오든가 또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가 하는 선택 무의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인이 현실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모리아마(森山啓)는 말하였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 그 문학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이나 작가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될 필요가 있다.²¹⁾

1930년대의 식민지 현실에서 오장환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이기심과 왜곡된 관념을 버리고 “인간을 위한” 문학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인의 생활 경험에서 비롯되는 ‘현실에 대한 태도’였다. 모순된 전통과 근대 자본의 이기주의적인 문명이 상충하고 있는 근대에서 적어도 그가 보는 근대 문명의 기만성과 전통의 위선은 동일한 것이었다. 전통은 그 가치를 잃어가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근대는 일정 부분 강압되거나 차별에 기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이다’와 ‘그는 시인이다’ 중에 서슴지 않고 ‘인간이 되겠다’고 했던 오장환에게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의무’는 진정한 삶과 문학을 위한 신념이었으며, 이것은 반성적 지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반성적 지성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를 받아들여려는 오장환의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즉 근대 문명에 대한 그의 열정과 관심은 서구 문화에 대해 동경과 집착으로만 그치지 않고 식민지 조선의 현실 속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예로 명치(明治)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해서 열었던 ‘남만서점’은 문인들의 책을 출판하고 상호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서점에는 절판, 한정판, 호화판, 진귀본 등 당시 조선에서는 쉽게 구해볼 수 없는 책들이 많았으며, 특히 자신과 동인들의 시집을 직접 간행하였

21) 김재용 편, 『문단의 파괴와 참다운 신문학』, 앞의 책, 210-211면.

다. 또한 극단 ‘낭만좌’의 일원으로 공연도 하고, 미술평론을 쓰기도 했다. 오장환은 시인과 출판인으로 그리고 문화기획자이자 사회 운동가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하며 근대 지성의 삶을 실천했다. ‘사람의 값을 다시 한 번 근원적으로 성찰’하기를 주장했던 <시인부락>의 동인 활동 또한 근대와 반성적 지성에 대한 그의 고민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알 수 있다.²²⁾

1930년대 문학적 전성기를 보낸 오장환은 새로운 문명의 변화 속에서 급변하는 당시 조선의 내·외적 상황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식민지라는 현실은 근대적 가치와 새로운 이념을 왜곡하고 굴절시켰는데, 일본에 의해 강요되고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애초에 충돌과 갈등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식민지 근대 속의 개인들은 근대의 적극적 수용하면서 동시에 봉건적 잔재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Ⅲ. 주체의 분열과 이중적인 욕망

전근대적 가치 속에 내재되어 있는 허위와 기만을 비판하며 현실과 불화하는 근대 개인들은 집단과 개인의 가치에서 오는 욕망의 차이에서도 분열적인 모습을 보인다. 유교적 관습과 봉건적 질서 속 전근대의 주체들은 집단의 욕망을 위해 개인의 욕망이 희생되었다면, 근대의 주체들은 자발적인 개인의 욕망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근대적 욕망은 문명과 자본주의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역시 계급과 계층의 차별이라는 점에서 전

22) 이러한 오장환의 생각은 “이조 이후, 더 나아가서는 고려 이후로 우리 문화가 자주성을 잃은 대신에, 남의 귀뜸으로만 살아온 슬픔을 생각해 보라. 4천년이나 되는 문화를 가지고 이것이 중간에 와서 한 번도 자기를 반성함이 없이 덮어놓고 외계로만 향한 속절없음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도 우리 풍토와 문화 속엔 돌아볼 재산이 없었는가” 에서도 드러난다. (김재용 편, 『방황하는 시정신』, 앞의 책, 230면.)

근대적 욕망과 유사한 속성을 보인다. 무엇보다 오장환의 시에는 서열이라는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망과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소극적인 태도의 이중성이 드러난다. 이것은 근대 개인들이 '전통과 습속에 고통을 당하고 그에 대항하여 싸우는 자(者)'(『문단의 파괴와 참다운 신문학』)이며, 동시에 전근대적 이념과 근대의 가치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이중적 모순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열녀를 모셨다는 정문은 슬픈 울 창살로는 음산한 바람이 스미어들고 붉고 푸르게 칠한 황토 내음새 진하게 난다. 소저(小姐)는 고운 얼굴 방안에만 숨어 앉아서 색시의 한시절 삼강오륜 주송지훈(朱宋之訓)을 본받아왔다. <…> 소저의 신랑은 여섯 해 아래 소저는 시집을 가도 자위하였다. 쭈군, 쭈군 지껄이는 시집의 소문 소저는 겁이 나 병든 시에미의 똥맛을 훑아보았다. 오 효부라는 소문의 펼쳐집이여! 양반은 죄금이라도 상놈을 속여야 하고 자랑으로 누르려 한다. 소저는 열아홉. 신랑은 열네살 소저는 참지 못하여 목매이던 날 양반의 집은 삼엄하게 교통을 끊고 젊은 새댁이 독사에 물리려는 낭군을 구하려다 대신으로 죽었다는 슬픈 전설을 쏟아냈었다. 그래서 생겨난 효부열녀의 정문 그들의 종친은 가문이나 변화하게 만들어보자고 정문의 광영을 붉게 푸르게 채색하였다.

- 「정문(旌門) - 염락(廉洛)·열녀불경이부충신불사이군(烈女不敬二夫忠臣不事二君)」 전문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안에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기키어 주는 신주(神主)들 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사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중략)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나간다.

- 「종가(宗家)」 부분

‘정문’은 가문과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유교적 이념의 상징 중의 하나이다. 정문이 세워지게 된 슬픈 사연을 이야기한 이 시는 부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열녀불경이부熱女不敬二夫’라는 명분 때문에 인륜에 억눌린 채, 어린 신랑을 두고 목매어 죽은 열아홉 소저에 대한 이야기다. 양반들이 자신들의 가문과 권위를 위하여 정문을 “붉게 푸르게 채색하였다”는 묘사는 매우 사실적이며 풍자적이다. 하지만 소저의 좌절된 욕망과 죽음을 ‘효’라는 명분으로 은폐하려는 양반들의 기만적 행위는 그들의 이중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오장환은 여러 자손들과 가문의 내력을 지키는 ‘종가’와 그 종가를 이끌어가는 종손들의 관습들에 대해서도 냉소적이다. 『종가』에서는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리대금을 하면서 호위호식하는 양반들의 일상과 그들의 숨은 욕망에 대해서도 풍자적 시선을 보인다. 손주며느리와 팔촌까지 모두 어울려 사는 혈연공동체에서 가문의 서열과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신주(神主)’를 제사 때마다 정성으로 닦고 또 닦는 것은 그것이 그들을 지탱하는 가치이자 권위이기 때문이다. 『정문』에서 이미 자신들의 가문을 지키기 위한 양반들의 허위적 기만이 여실히 드러났듯이 이 시에서도 대대로 내려오는 종가의 모순된 이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 성은 오씨, 어째서 오가인지 나는 모른다. 가급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해주로 이사온 일 청인(淸人)이 조상이라는 가계보의 검은 떡글씨. 옛날은 대국숭배를 유심하는 하고 싶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진실 이가였는지 상놈이였는지 알 수도 없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보를 창작하였고 매매하였다. 나는 역사를, 내 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거웁고나. 수통하고나.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애욕을 잊을라면은 나는 성씨보가 필요치 않다. 성씨보와 같은 관습이 필요치 않다.

- 『성씨보-’오래인 관습, 그것은 전통을 말함이다』 전문

나요, 오장환이요. 나의 곁을 스치는 것은, 그대가 아니요. 검은 떡구렁이요. 당신이요.

외양조차 날 닮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한 신용하리요.
이야기를 들리요. 이야길 들리요.
비명조차 숨기는 이는 그대요. 그대의 동족뿐이요.
그대의 피는 거뭇다지요. 붉지를 앓고 거뭇다지요.
음부 마리아 모양, 집시의 계집애 모양,

당신이요. 충충한 이구리에 까만 열매를 물고 이브의 뒤를 따른 것은 그대
사탄이요.

차디찬 몸으로 친친히 날 감아주소. 나요. 카인의 말예(末裔)요. 병든 시
인이요. 벌(罰)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능금을 따먹고 날 낳았고.

- 『불길한 노래』 부분

『성씨보』에서는 ‘족보’로 상징되는 봉건적 질서에 대해 좀 더 노골적인 비판을 한다. ‘오래인 관습, 그것은 전통을 말함이다’라는 부제에서 전통을 관습으로 동일화하고 있다. 여기서 오장환은 근대 개인들이 끝내 버릴 수 없는 족보에 대해서도 부정과 유혹의 두 측면을 동시에 보인다. ‘족보’에 대한 불신과 거부는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차별당하고 멸시당했던 유년에 대한 기억에서 유래되었을 것이다. 또한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보를 창작하였고 매매하였다”는 당시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된 책 중 가장 많은 유형의 책이 ‘족보’였는데²³⁾ 역사적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오장환이 족보를 야유하고 부정하는 또 다른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즉 ‘족보’로 인한 차별과 멸시에는 숨은 욕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에서 ‘애욕’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나는 성씨보가 필요치 않다. 성씨보와 같은 관습이 필요치 않다”는 화자의 강한 부정 속에 족보에 대한 불신과 숨은 욕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족보를 창작하고 매매하는 근대 주체들의 허위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욕망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23) 천정환, 『1920-30년대의 책읽기와 문화의 변화』, 『근대를 다시 읽는다』 1권, 역사비평사, 2006, 18면.

『불길한 노래』에서는 ‘나’와 ‘오장환’ 그리고 ‘그대’와 ‘당신’의 복잡한 관계들이 혼란스럽게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불안한 ‘나’의 다른 모습이며 나아가 ‘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적 자아이자 내면 속의 분열된 자아들이다. 철저한 자기부정과 자학에서 비롯된 이러한 주체들은, ‘비명조차 숨기는 이’이고 ‘음부 마리아’와 ‘집시의 계집애’처럼 혼돈과 분열로 이어진 자들이다. 각자 다르면서 같은 이들의 내면에는 전근대의 ‘권위와 차별’에 대한 반항과 근대의 ‘자본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근대와 식민이라는 복합적인 시대 상황아래 피식민 주체들 속에 내재된 이중의 모순된 욕망들은 이 시에서처럼 주체의 분열된 여러 모습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리대금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영감(『중가』)이나 열아홉에 과부가 된 소저를 가문의 번영에 이용하려는 양반들(『정문』), 그리고 ‘카인의 말에’이며 ‘병든 시인’으로서 스스로를 사탄이라 부르는 시인 등 이들은 모두 동시대를 살아가는 근대의 주체들이다. 그들은 전통적 관습과 근대의 가치 사이에서 이중적인 자아와 욕망의 모습을 보인다. 오장환은 근대를 지향하려는 욕망과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현실적 소외감이 빛나는 괴리에서 오는 주체의 분열로부터 근대화의 모순을 신랄하게 인식하고 경험했던 것이다. 계급과 신분, 식민과 피식민 사이에는 사회 전통적 욕망과 근대 개인의 이중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드러난다. 모순적 현실을 받아들여려는 욕망과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또한 이중적 욕망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이방인의 공간과 현실에 대한 환멸

근대로 접어들어 20세기 초에 근대 개인들은 국권 상실과 근대 문명의 홍수 속에서 가치판단의 근거를 개인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과 근대의 현실에서 이중적 자아의 모습을 드러낸 근대 주체들은 식민 근대의 공간에서도 현실에 대한 환멸을 겪게 된다. 이질적이고 혼재된 근대를 받아들

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전근대와 근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경계에서 이방인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몸담은 공간에서도 존재의 정체성뿐 아니라 ‘신뢰할 만한 현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내면에 비친 풍경들은 환멸 그 자체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근대 개인이 경험한 도시를 비롯한 공간들은 사회적 실존의 공간으로, 여기서의 경험은 세계와의 관계 맺음을 의미한다. 개인은 자신의 경험과 반성을 통해 공간을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그 공간에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한다.²⁴⁾ 그러므로 공간에 대한 기억은 공간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며,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상력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마르쿠스 슈뢰르의 말처럼 공간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만 비로소 생겨나는 것’²⁵⁾일 뿐 아니라, ‘인간의 삶과 가치가 녹아드는 중심’²⁶⁾으로, 주체들의 다양한 감각을 통한 총체적인 경험에 의해 구체적인 현실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공간에 대한 탐구와 연구는 그 자신의 가치관과 정서를 탐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또한 근현대인의 다양한 정신적 삶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도시는 사회적인 관계들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며, 개인의 모든 삶의 형태를 객관화하고 획일화시킴으로써 얻어낸 결과라고 규정하였다.²⁷⁾

오장환의 시에서는 일상의 공간이나 여행의 장소들이 많은데 그러한 장소에서는 비교적 시적 주체의 불안감과 환멸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매음가, 술집, 도박촌 등 도시 변두리의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공간과 목욕장과 같은 자본주의의 문화적 공간에서는 근대의 속물성과 봉건적인 보수성이

24) 장만호, 『해방기 시의 공간 표상 방식 연구』, 앞의 책, 287-288면.

25)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29-30면.

26) 이-푸 투안은 공간이 넓은 경우 그 공간이 장소가 되려면 개념을 만드는 능력뿐 아니라 개인 스스로의 운동 감각적 경험과 인지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때 장소에 대한 감정은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 역, 대운, 2007, 26면.)

27)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33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수업료를 바치지 못하고 정학을 받아 귀향하였을 때 달포가 넘도록 청
결을 하지 못한 내 몸을 씻어보려고 나는 욕탕엘 갔었지
뜨거운 물속에 원몸을 잠그고 잠시 아른거리는 정신에 도취할 것을 그리어
보며
나는 아저씨와 함께 욕탕엘 갔었지
아저씨의 말씀은 “내가 돈 주고 때 씻기는 생전 처음인걸”하시었네
아저씨는 오늘 할 수 없이 허리 굽은 늙은 밤나무를 베어 장작을 만들어가
지고 팔러 나오신 길이었네
이 고목은 할아버지 열두 살 적에 심으신 세전지물(世傳之物)이라고 언제나
“이 집은 팔아도 밤나무만은 못 팔겠다”하시더니 그것을 베어가지고 오셨네그
려
아저씨는 오늘 아침에 오시어 이곳에 한 개밖에 없는 목욕탕에 이 밤나무
장작을 팔으시었지
그리하여 이 나무로 데운 물에라도 좀 몸을 대이고 싶으셔서 할아버님의 유
물의 부품이라도 좀더 가치이 하시려고 아저씨의 목적은 때 씻는 것이 아니었
던 것일세

- 「목욕간」 부분

수업료를 내지 못해 귀향한 ‘나’는 신교육을 받은 근대적 인물이지만 집은
팔아도 밤나무만은 팔지 못하겠다는 아저씨는 전근대적인 가치를 고집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이 개인의 위생과 관련 있는 목욕을 돈을 주고 하는 행위
는 근대적 문명의 혜택을 받으려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전지물’인 밤
나무를 땀감으로 시장에 팔았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절박한 인물들의 경제적
현실과 전근대적 가치의 몰락을 동시에 의미한다.

목욕탕 주인이 피식민자들을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도 아저씨와
나를 배제한 것에 대해 시인은 반감과 모멸감을 함께 느낀다. 오장환의 등단
작인 이 시는 그가 습작 시절, 기억을 회상하며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대화체

의 서술 그리고 근대의 상징적인 문물과 풍경으로 개인과 민족이 처해 있는 시대적 현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돈을 지불할 수 있음에도 목욕을 할 수 없는 숙질과 나의 상황에서 근대와 전통,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 근대 자본의 인종적, 계급적 차별 등에 대한 갈등들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이 시에서 ‘목욕간’은 식민지를 살아가는 시인에게 근대의 시·공간적 변모를 확인하는 장소이자 식민지의 지배자와 자본에 의한 소외와 낮섬을 실감하는 이방인의 공간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와 근대 자본의 문화, 제국주의와 피식민 주의가 대립하고 있는 공간의 모습은 개인들의 일상에서부터 휴양지나 도시 뒷골목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대부분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문화가 번성하며, 타락한 현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이다.

운천지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 은빛 자동차가 드나들었다. 늙은이나 어린이나 점잖은 신사는, 꽃 같은 계집을 음식처럼 신고 물탕을 온다. 젊은 계집이 물탕에서 개고리처럼 떠 보이는 것은 가장 좋다고 늙은 상인들은 저녁상머리에서 떠들어댄다. 움쟁이 팍쟁이 가진 각색 더러운 피부병자가 모여든다고 신사들은 투덜거리며 가족탕을 선약하였다.

- 「운천지」 전문

전당포에 고물상이 지저분하게 늘어선 골목에는 가로등도 켜지는 않았다. 죄금 높다란 포도(鋪道)도 깔리우지는 않았다. 죄금 말쑥한 집과 죄금 허름한 집은 모조리 충충하여서 바짝바짝 친밀하게는 늘어서 있다. 구멍 뚫린 속내의를 팔러 온 사람, 구멍 뚫린 속내의를 사러 온 사람, 충충한 길목으로는 검은 망토를 두른 주정꾼이 비틀거리고, 인력거 위에선 차(車)와 함께 이미 하반신이 썩어가는 기녀들이 비단 내음새를 풍기어 가며 가늘은 어깨를 흔들거렸다.

- 「고전(古典)」 전문

향락지를 대표하는 제목의 시 「운천지」에서는 “점잖은 신사”와 “꽃 같은 계집”의 관계가 부각된다. ‘성(性)’ 또한 ‘시장’이라는 자본주의 제도와 결합

되어 상품의 성격을 띠게 되고, 그 행위에 참여하는 주체를 서로 소외시킴으로써 부조리한 관계를 양산한다. 억압되고 금기시된 성(性)과 타락하고 상품화된 성을 통해 1930년대 식민지적 근대의 허위성을 포착한 오장환이 퇴폐와 윤락의 공간에서 느끼는 우울과 비애 또한 환멸적일 수밖에 없다.

『고전』에서도 근대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인 면모들이 드러나고 있다. 도시의 후미진 골목은 전당포와 고물상이 늘어서 있는 지저분한 곳으로 대부분 주정꾼들과 기녀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의 골목은 인간의 고립과 소외를 더욱 분명하게 인지하는 대표적인 이방인의 공간이다. “최근 말숙한 집과 최근 허름한 집”들이 즐비한 이곳은 근대와 전근대가 어색하게 공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기녀들 또한 근대와 전근대 사이에서 방황하는 존재들로, 하반신이 썩어가는 심각한 상태²⁸⁾에서도 이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장환은 당대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식민 근대의 이면에 숨어 있는 근대와 자본주의의 황폐하고 병든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²⁹⁾ 그는 더 나아가 컴컴한 도시 뒷골목이나 유곽 그리고 음산한 항구 주변의 근대적 공간에서의 퇴폐적이고 타락한 시적주체의 경험을 통해 현실의 환멸을 여실히 드러내고자 했다.

어포의 등대는 귀류(鬼類)의 불처럼 음습하였다. 어두운 밤이면 안개는 비처럼 내렸다. 불빛은 오히려 무서웁게 검은 등대를 튀겨놓는다. 구름에 지워지는 하현달도 한참 자욱한 안개에는 등대처럼 보였다. 돛폭이 충충한 박쥐의

28) 인간 신체에 대한 혐오감 있는 표현들은 근대 사회의 병리적 징후의 하나로, 린다 노클린은 신체의 절단과 변형된 신체 이미지를 통틀어 근대 사회의 특징을 대변하는 모더니티의 은유라 해석하였다. (린다 노클린, 정연심 역,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조형교육, 2001, 14면)

29) 이것은 보들레르가 대도시에서 전개되는 현대 문명의 황폐함과 추악성 그리고 폭력성 등을 서정시라는 장르를 통해 예술적 인식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와 그 맥이 일정부분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문병호, 『보들레르와 대도시 공간』, 『서정시와 문명비판』, 문학과 지성사, 1995, 112면)

나래처럼 펼쳐 있는 때, 돛폭이 어스름한 해적의 배처럼 어른거릴 때, 뜰 안에 서는 고기를 많이 잡은 이나 적게 잡은 이나 함부로 투전을 뽑았다.

- 『어포(魚浦)』 전문

나폴리(Naple)와 아덴(ADEN)과 싱가포르(Singapore). 늙은 선원은 항해표와 같은 기억을 더듬어본다. 해항의 가지가지 백색, 청색 작은 신호와, 영사관, 조계(租界)의 갖가지 깃발을. 그리고 제 나라 말보다는 남의 나라 말에 능통하는 세관의 젊은 관리들. 바람에 날리는 흰 깃발처럼 Naples. ADEN. Singapore. 그 항구, 그 바의 계집은 이름조차 잊어버렸다.

망명한 귀족에 어울려 풍성한 도박. 킁킁한 골목 뒤에선 눈자위가 시퍼런 청인(淸人)이 피춤을 흠칫거리면 길 밖으로 달리어간다. 흥등녀의 교소(嬌笑), 간드러지거야. 생명수! 생명수! 과연 너는 아편을 가졌다. 향시의 청년들은 연기를 한숨처럼 품으며 익세인 손을 흔든다.

- 『해항도(海港圖)』 부분

안개가 내려앉은 암울하고 우울한 항구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이들이 도박과 유희에 빠지는 부패와 타락의 장소이다. 화려하거나 낭만적인 이국적 풍경과는 달리 우울하고 적막한 위 시의 항구들은 이방인의 공간이자 화자 내면에 자리한 유희의 공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항구가 공간적 배경이 되는 시에서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는 시인 자신이 처한 상황이자 모순된 근대 주체들의 암울한 내면일 것이다. 따라서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순간적인 쾌락으로 절망적인 현실을 피하거나 견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명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던 항구 도시는 부패와 타락의 온상으로 현실의 환멸을 경험하는 장소로 전락하게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계획적이고 화려한 근대의 발전 이면에는 ‘환락의 도시’, ‘불결한 하수구의 병든 거리’ 그리고 어두운 항구의 뒷골목 등 타락하고 은폐된 공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근대 개인들은 도시의 항구나 유희가 등과 같은 관능과 퇴폐적인 장소에 탐닉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하

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러한 곳이 고향을 떠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착해야하는 생존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방인으로서 경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적 주체들의 모습 속에는 모순된 현실에 대한 환멸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황무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황무지’는 텅 빈 공간이자 불모의 공간으로 이 시에서는 한때 산업화로 부를 희망하며 활기를 띠었던 탄광촌을 말하지만, 현재는 ‘있었던’ 흔적만 남은 “무인경(無人境)”의 장소일 뿐이다. 근대화가 지나간 후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폐광촌은 이상과 꿈이 깨어지고 실망감과 허무만 남은 근대인의 현실에 대한 환멸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간의 삶이 윤택해지고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근대 개인들의 기대는 불신과 좌절을 초래하기에 이른다. 이질적이고 혼재된 근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개인들은 근대의 소외되고 낮은 공간에서 어두운 내면의 고립과 황폐함을 경험한다. 그들은 자신이 몸담은 현실의 공간에서도 존재의 정체성뿐 아니라 어디에도 ‘신뢰할 만한 현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환멸이 내재화된 자신의 내면만을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오장환의 초기 시에 드러나는 다층적인 모습의 근대성이 근대 주체의 내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근대는 인간의 삶과 문명에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그 이면에 매혹과 부정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근대의 주체들은 근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봉건적 잔재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

1930년대 문학적 전성기를 보낸 오장환이 주장했던 것은 개인의 이기심과 왜곡된 관념을 버리고 인간을 위한 문학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동

안 그의 시에서 근대에 대한 저항이나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됨으로써 시적 주체의 내면과 연관된 구도가 상당히 간과된 것은 사실이었다. 모순된 전통과 근대 자본의 이기주의적인 문명이 상충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의 현실에서 적어도 오장환이 보는 근대 문명의 기만성과 전통의 위선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식민지라는 현실은 근대적 가치와 새로운 이념을 왜곡하고 굴절시켰는데, 근대화가 일본에 의해 수용되고 강요되었다는 점에서 애초에 충돌과 갈등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식민지 근대 속의 개인들은 근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봉건적 잔재를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오장환의 초기 시에 해당하는 『전쟁』이나 『수부』의 시에서는 대상을 타자화하며 객관적 거리두기를 하는 화자의 관찰자적 시선이 드러났다. 이러한 시선에는 언제나 자아와 타자 그리고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관찰자적 시선은 근대 문명과 자본으로 인해 비인간화되고 소외된 현실을 비판하는 근대적 시선으로 현실을 성찰하는 반성적 지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불길한 노래』에서는 ‘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오장환’의 자아와 ‘나’의 성찰적 시선에 포착된 내면 속의 또 다른 자아들이 서로 교차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자아의 모습은 철저한 자기부정과 욕망에서 비롯된 분열된 주체들이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리대금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영감(『종가』)이나 열아홉 살에 과부가 된 소저를 가문의 번영에 이용하려는 양반들(『정문』) 또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근대의 주체들이다. 그들은 모두 전통과 근대, 식민지의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이중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현실의 혼란과 소외로부터 주체가 분열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것은 바로 복합적인 욕망이 내재화된 근대 주체들의 자의식의 소산이기도 하다.

식민주의 근대의 현실 속에서 이중적 자아의 모습을 드러낸 개인들은 자신들이 거처하는 공간에서도 현실에 대한 환멸을 경험한다. 그들이 머문 도시를 비롯한 체험의 공간들은 사회적 실존의 공간이며 나아가 한 개인의 가

치관이나 상상력의 지표로써 작용했다. 이질적이고 낯선 이방인의 공간에서도 근대 자본의 인종적, 계급적 차별과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다. 황폐한 주체들이 느끼는 가망 없는 현실에 대한 환멸은 근대를 경험하는 주체들의 내면을 한층 더 깊이 드러내는 지점이었다.

오장환의 초기 시에 드러나는 근대성은 근대 주체들의 사회·역사적 인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엇보다 시인 오장환 자신의 경험에 따른 사유를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근대성은 시적 주체들의 내면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근대적 시선과 주체의 분열 그리고 이방인의 공간이라는 근대적 특성들은 주체들로 하여금 성찰적 지성과 이중적 욕망 그리고 현실에 대한 환멸 등의 내면적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 이러한 지점은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며 그의 시가 지니는 시사적 의미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김재용 편, 『오장환 전집』, 실천문학사, 2002.

2. 논저

강경희, 『오장환 시의 근대적 미의식 연구-8·15 이전 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307면.

강영안, 『주체의 자리-전통, 근대, 탈근대 사이』, 『전통·근대·탈근대의 철학적 조명』, 철학과 현실, 1999년, 44면.

게오르그 짐멜, 김덕영·윤미애 역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33면.

곽명숙, 『吳章煥의 長詩 『戰爭』과 몽타주적 알레고리』,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0호, 2012, 274면.

김성기, 『개항기의 한국사회와 근대성의 형성』,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261~263면.

김용직, 『열정과 행동』, 『현대시』, 1992. 4월호, 56면.

김학동, 『오장환 평전』, 새문사, 2004, 77면.

남기혁, 『현대시의 형성기(1931~1945)』, 『한국현대시사』, 민음사, 2007, 167면.

린다 노클린, 정연심 역,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조형교육, 2001, 14면.

마르쿠스 슈뢰르, 정인모·배정희 역,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2010, 29-30면.

마테이 칼리니스쿠,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옥 외 역, 1993, 53-54면.

문병호, 『보들레르와 대도시 공간』, 『서정시와 문명비판』, 문학과 지성사, 1995, 112면.

미셸 푸코, 섬세광 역,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254면.

박민규, 『오장환 시의 덴디즘에 나타난 근대 비판의 성격』, 『비교한국학』1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7, 229면.

- 박현수, 『오장환 초기시의 비교문학적 연구』, 『한국시학연구』, 2001, 147면.
- 발터 벤야민, 조형준 역, 『아케이드 프로젝트』, 새물결, 2005. 989-970면.
- 엄성원, 『한국 현대시의 근대성과 탈식민성』, 보고사, 2006, 17면.
- 이경아, 『오장환 시의 근대성 연구』, 『국어국문학』149호, 국어국문학회, 2008, 607면.
- 이성혁, 『1930년대-1940년대 초반 한국 아방가르드 시의 정치성 연구』, 『외국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7. 112-115면.
-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 역, 대운, 2007, 26면.
- 이현승, 『오장환의 『전쟁』 연구』, 『비평문학』 42호, 한국비평문학회, 2011, 326-328면.
- , 『오장환 시의 부정의식 연구-초기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 25호, 한국시학회, 2009, 228면.
- 이호덕, 『표상공간의 근대』, 소명출판사, 2007, 19면.
- 장만호, 『부정의 아이러니와 환멸의 낭만주의』, 『한국시와 시인의 선택』, 서정시학, 2015, 288-189
- 주영중, 『오장환 시의 낭만성 연구-『성벽』과 『헌사』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1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422-425면.
- 천정환, 『1920-30년대의 책읽기와 문화의 변화』, 『근대를 다시 읽는다』1권, 역사비평사, 2006, 18면.
- 최두석, 『오장환 시적 편력과 진보주의』, 『오장환 전집2』, 창작과 비평사, 1989, 120면.
- 최명표, 『해방기 오장환의 시와 시론』,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5, 189면.
- 홍기돈, 『오장환 시의 정치성 연구』, 『어문연구』 64집, 어문연구학회, 2010, 135면.

【Abstracts】

**A Study on the Modernity and Inner Consciousness
in the Early Poetry of Oh Jang-hwan**

Kim, Jiyul

In this paper, I will look into how the multilayered modernity showed in the early poetry of Oh Jang-hwan influenced the inner consciousness of modern subject. In other words, I want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modernity and inner consciousness by demonstrating the complex inner consciousness of modern subjects through more detailed characteristics of colonial capitalism modernity.

The 1930s was a special and complex period time of 'modern' and 'colonial', and the colonial subjects internalized the multilayered contradictions of colonial modernity. In the early poetry of Oh Jang-hwan, the distance of objectivity and observational gaze are revealed by becoming the other. This gaze is in contact with the reflective intelligence of the modern subject wandering between the conviction and skepticism about modernity. In addition, modern subjects who are faithful to personal desires in the values and ideologies of modern and premodern times experience the division of subject by being exposed to the contradictions of colonial modernity. Finally, the spaces including cities experienced by modern individuals are the space of social existence and become an indicator of individual values and imagination. They also

experience racial discrimination and class distinction in the colonial modernity and disillusionment of reality in decadent and enjoyable cultures.

Key Words: Oh Jang-hwan, Modernity, Observational Gaze, Reflective Intelligence, Subject, Stranger, Space, Disillusionment.

이 논문은 2019년 02월 1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3월 1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3월 2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